

<보고서>

하반기 전북지역기업 인력채용 실태조사

2023. 6

I. 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- 지역 기업들의 하반기 인력 채용계획 및 애로사항을 조사·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

2. 조사기간

- 기초자료 조사 : 2023. 5. 17 ~ 5. 26
-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: 2023. 5. 29 ~ 6. 9

3. 조사대상

- 전북지역 소재 기업 130개사
 - 제조업 78, 비제조업 52
 - 대기업 11, 중견기업 3, 중소기업 116

4. 조사방법

- FAX와 전화조사 병행

5. 조사항목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 채용 인원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 채용 이유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 채용 시기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 채용 직종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 채용 형태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 | <input type="checkbox"/>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|

6. 기 타

-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
-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퍼센트(%) 총계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II. 2023년 하반기 전북지역기업 인력 채용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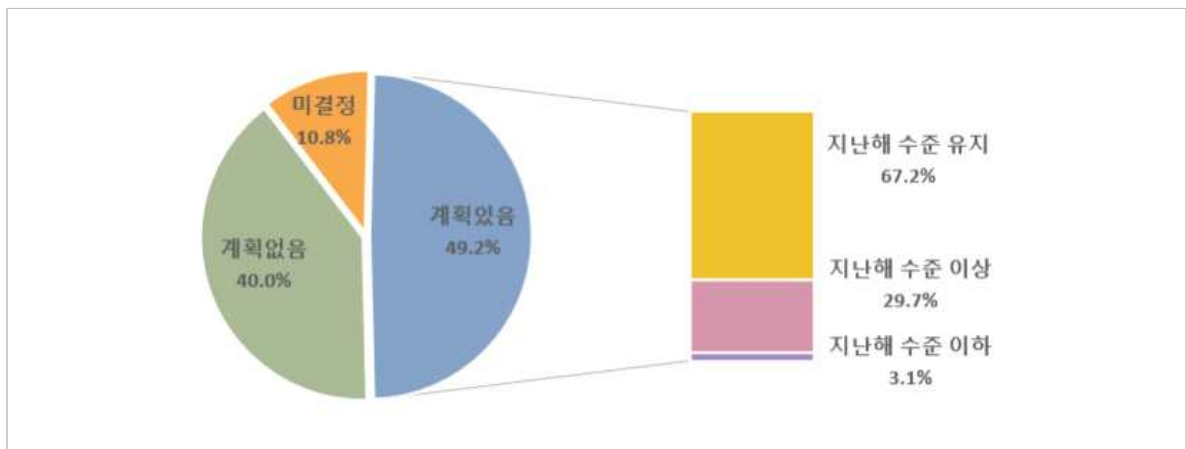
1. 하반기 채용 계획

-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「2023년 하반기 전북지역기업 인력채용 실태」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49.2%가 ‘올해 하반기 중에 인력을 채용할 것’ 이라고 응답하여 지역 고용 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
-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고금리, 고환율, 고물가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늘리려 하는 이유는 퇴사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신규투자 및 사업확장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
- 한편, ‘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’ 는 응답은 40.0%로 나타났으며, ‘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’ 는 응답은 10.8%로 집계됨

2. 하반기 채용 수준

- 올해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인원 수준을 묻은 결과 ‘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할 계획’ 이라는 응답이 67.2%로 가장 많았으며, ‘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’ 이라는 응답이 29.7%, ‘지난해보다 적을 예정’ 이라는 응답이 3.1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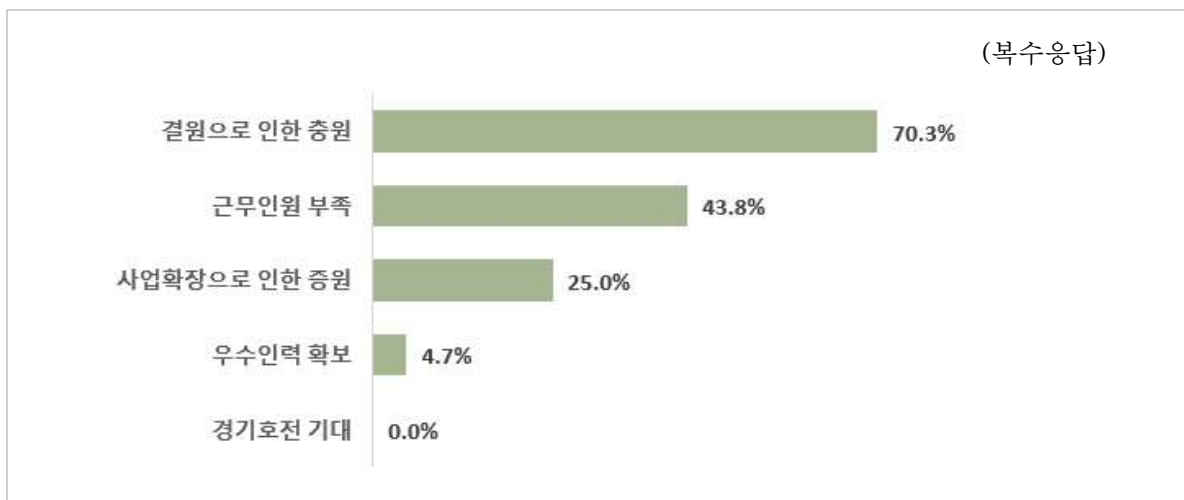
【 인력 채용계획 및 채용인원 수준 】



3. 하반기 채용 이유

- 올해 하반기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‘퇴사 등 자연적인 결원으로 인한 인력 충원’ 이라는 응답이 70.3%로 가장 많았으며, ‘현재 근무인원 부족으로 인한 충원’ 이 43.8%, ‘신규투자 및 사업확장으로 인한 증원’ 이 25.0%, ‘시대변화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’ 가 4.7% 순으로 나타남 (복수응답)
- 한편, 경기호전을 기대해 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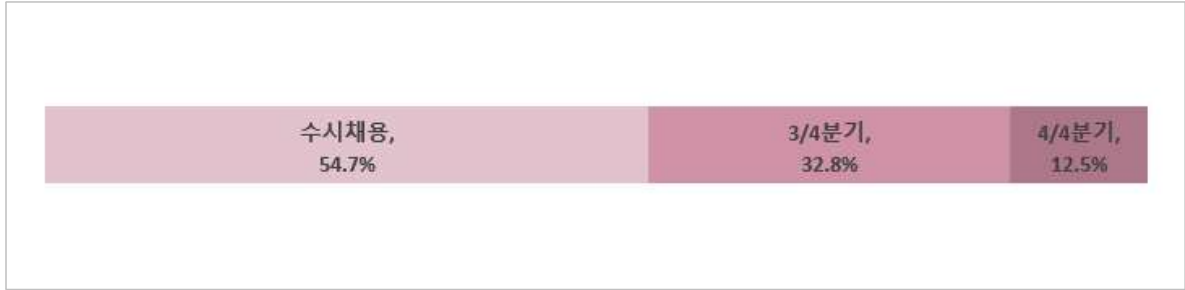
【 하반기 인력 채용 이유 】



4. 하반기 채용 시기

- 하반기 신규채용 시기로는 ‘수시채용’ 이 54.7%로 가장 많았으며,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인 ‘3/4분기’ 채용이 32.8%, 10월에서 12월 사이인 ‘4/4분기’ 채용은 12.5%로 나타남
- 이처럼 지역기업들의 수시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연적인 인력감소에 대한 충원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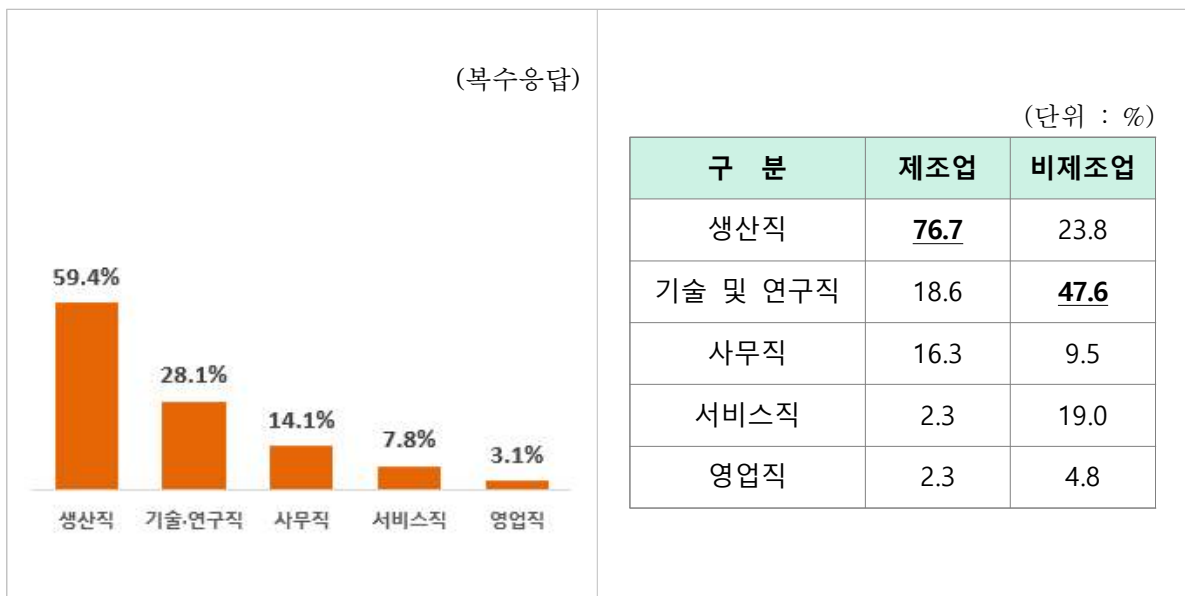
【 신규인력 채용 시기 】



5. 하반기 채용 직종

-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시 고려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‘생산직’이 59.4%로 가장 많았으며, ‘기술 및 연구직’이 28.1%, ‘사무직’이 14.1%, ‘서비스직’이 7.8%, ‘영업직’이 3.1% 순으로 조사됨 (복수응답)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주로 ‘생산직(76.7%)’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비제조업은 ‘기술 및 연구직(47.6%)’을 위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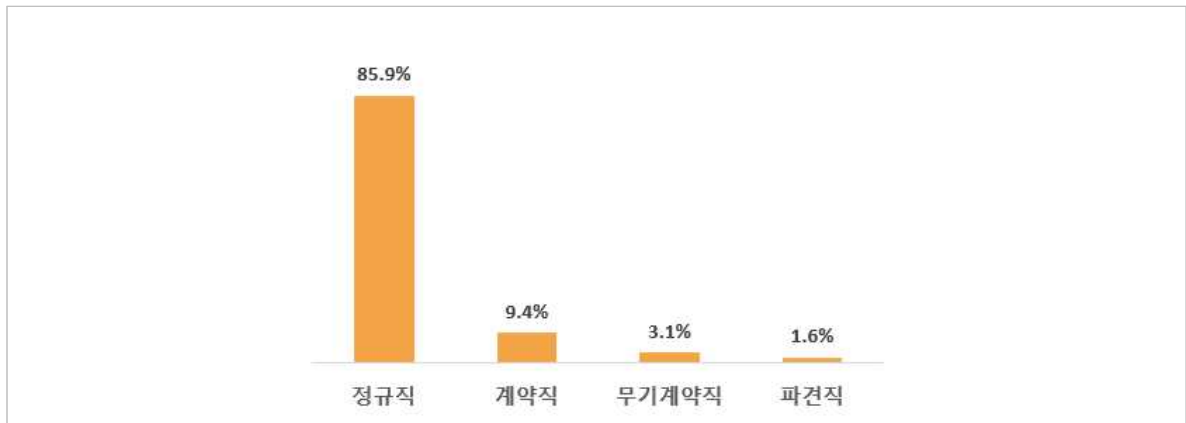
【 인력 채용 희망 직종 】



6. 하반기 신규채용 형태

- 도내 기업들은 하반기 인력채용시 ‘정규직’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85.9%로 가장 많았으며, ‘계약직’ 9.4%, ‘무기계약직’ 3.1%, ‘파견직’ 1.6% 순으로 조사되어 고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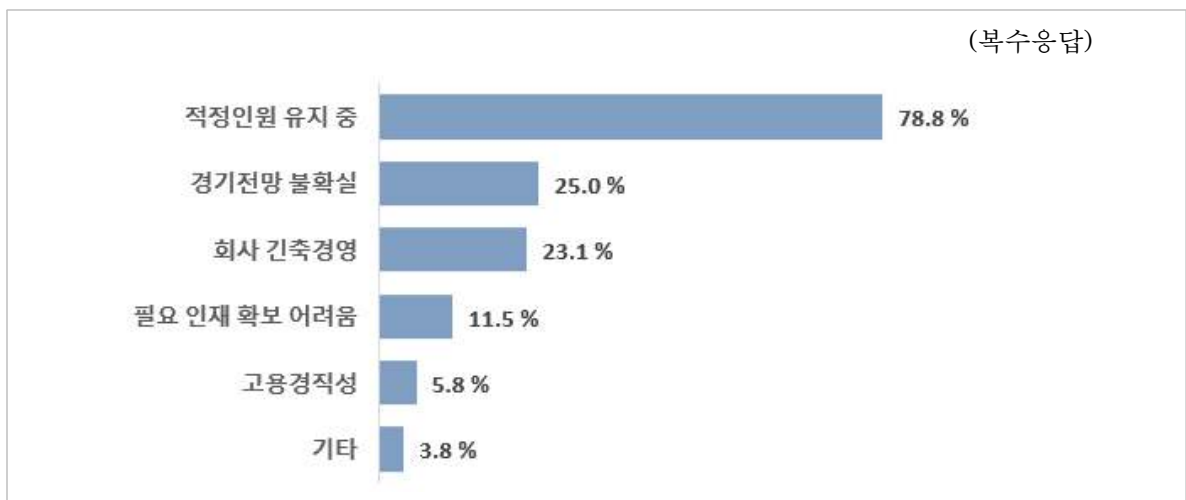
【 고용 형태 】



7. 신규채용 계획 없는 이유

-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‘현재 적정인원을 유지 중’ 이라서 라는 응답이 78.8%로 가장 많았으며, ‘국내외 경기전망이 불확실해서’ 라는 응답은 25.0%, ‘건축경영 등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’ 23.1%, ‘필요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져서’ 11.5%, ‘고용경직성에 따라 유연한 인력운용이 어려워져서’ 5.8% 순으로 나타남 (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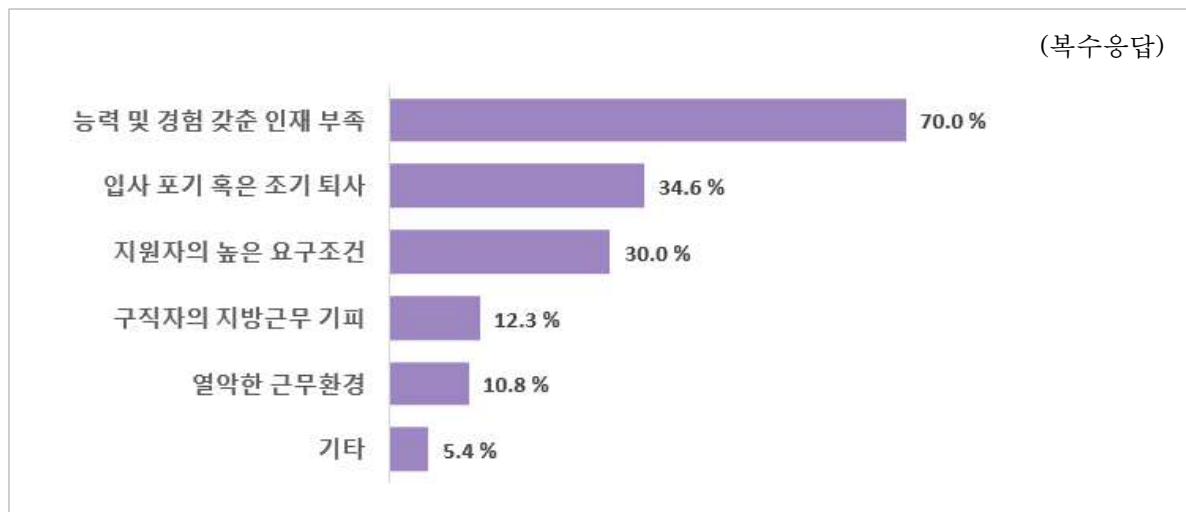
【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 】



8.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

- 인력 채용 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‘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찾기 힘들다’는 응답이 70.0%로 가장 많았으며, ‘합격자의 입사 포기 혹은 조기 퇴사 문제’가 34.6%, ‘연봉과 처우 면에서 지원자의 높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’라는 응답이 30.0%, ‘구직자의 지방 근무 기피현상’ 12.3%, ‘열악한 근무환경 문제’가 10.8% 순으로 조사됨 (복수응답)

【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 】



9.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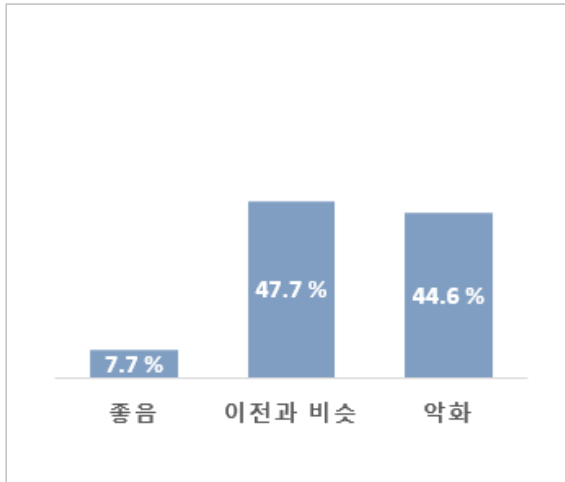
가. 경영상황

-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변화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‘이전과 비슷하다’라는 의견이 47.7%, ‘이전보다 악화됐다’라는 의견이 44.6%, ‘이전보다 좋아졌다’라는 의견이 7.7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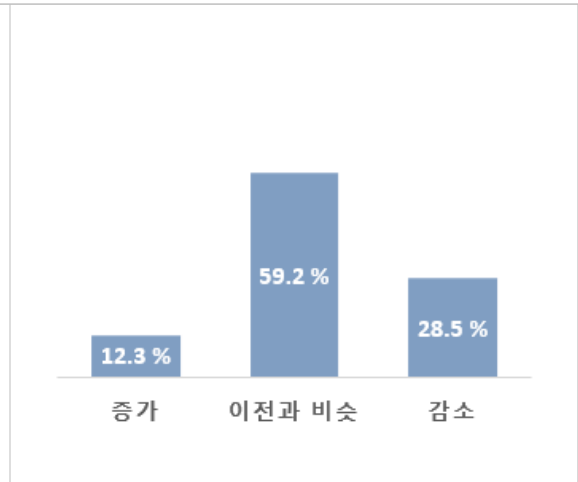
나. 근로자 수

-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‘비슷하다’라는 의견이 59.2%, ‘감소했다’라는 의견이 28.5%, ‘증가했다’라는 의견이 12.3%로 조사됨

【 경영상황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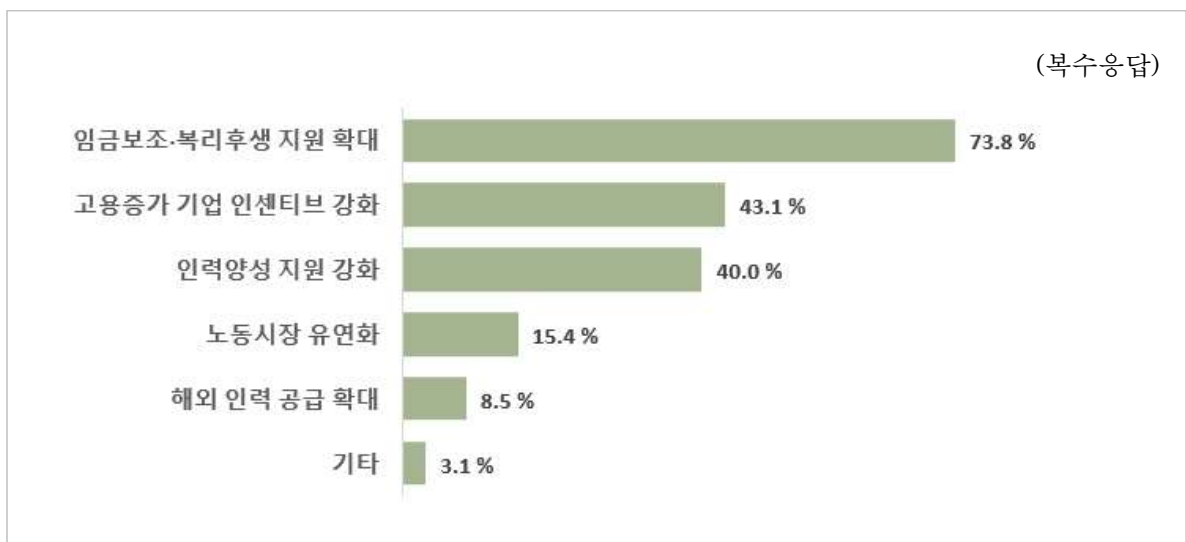
【 근로자 수 】



10. 인력채용 관련 정부지원 정책

- 신규채용 독려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‘임금 보조 및 복리후생 지원 확대’ 라는 응답이 73.8%로 가장 많았고, ‘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’ 43.1%, ‘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’ 40.0%, ‘노동시장 유연화’ 15.4%, ‘해외 인력 공급 확대’ 8.5%, 기타 3.1% 순으로 나타남 (복수응답)

【 인력채용 관련 정부지원 정책 】



Ⅲ. 결론 및 시사점

- 이번 조사 결과 우리 지역 기업들 중 절반이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, 이들 중 30%는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 내 일자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(지난해 수준 채용 67%)
- 고용 형태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정규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
- 다만,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연적인 결원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음
-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기업의 40% 이상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해 우리 지역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
- 한편, 우리 기업들은 인력 채용 시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원활한 일자리 수급을 위해 임금 보조 및 복리후생 지원 확대, 고용증가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